

나쓰메 소세키의 『夢十夜』에 나타난 불안 연구*

- 「第一夜」·「第三夜」·「第七夜」를 중심으로 -

權 赫 建**

目 次

1. 서론
2. 선행연구
3. 불안의 정의와 분류
4. 「第一夜」에 나타난 불안
5. 「第三夜」에 나타난 불안
6. 「第七夜」에 나타난 불안
7. 결론

1. 서론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는 태어나자마자 고물상 집에 수양아들로 보내져 고물상 가게 앞에 매일 밤 잠동사니와 함께 소쿠리에 넣어졌던 일이 있다. 이후 만 나이로 한 살이 된 해인 1968년에 시오바라 마사노스케(塩原昌之助) 라는 사람의 가난한 집으로 양자로 보내졌다. 그는 1888년 만 나이 21세에 시오바라 마사노스케의 양자 집에서 생가(生家)인 나쓰메(夏目) 집으로 복적(復籍) 한다¹⁾

어린 시절을 가난한 집안의 수양아들과 양자로 보내져 만 나이 21세에 생가에 복적했다는 것은 그의 생애가 불안을 안고 시작된 것으로 보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나쓰메 소세키가 1912년 45세 때에 작품 『行人』을 발표할 당시 찍은 사진을 언뜻 보면 콧수염을 기르고 중후한 표정을 짓고 있어 운택한 가정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사람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눈이 오른쪽은 쌍꺼풀이고 왼쪽은 쌍꺼풀이 아니다. 어딘가를 지긋이 바라보고 있는 그의 눈은 무엇인가 초조해 하는 것 같기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과제번호:2005AA015

** 동의대학교 교수 일본근대문학

1) 三好行雄 編 『夏目漱石事典』(學燈社, 1990.07) 10~11면 395면 참조

도 하고 까닭 모를 슬픔이 배어있는 얼굴이다.

나쓰메 소세키는 『그 후(それから)』라는 작품을 통해 러시아문학에 나오는 불안을 낯선 와 정치적 압박에 의한 것으로 해석했으며, 프랑스 문학에서의 불안은 유부녀의 간통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탈리아 문학에서의 불안은 걸잡을 수 없는 타락으로 인한 자기 결손 때문으로 보았다. 그리고 일본 문학자가 애써 불안이라는 측면에서만 사회를 모방하고자 하는 것은 서구풍의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표현했다.²⁾

나쓰메 소세키가 프랑스 문학에서의 불안은 유부녀의 간통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당시 작품을 읽었던 일본인 독자들은 재미있게 읽었겠지만 프랑스인들이 『그 후』라는 작품을 읽는 경우, 그는 심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문학에 나타난 인간의 불안의 원인에 대하여 나쓰메 소세키는 관심을 갖고 작품에 표현한 것이다.

작품 『그 후』에서 부친인 나가이 토쿠는 차남인 다이스케와 사가와 집안의 딸과의 결혼을 적극 추진한다. 하지만 다이스케는 「아버님의 말씀은 전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에게는 결혼을 승낙할 만한 용기가 없으므로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혼담을 거절한다. 이 말을 들은 나가이 토쿠는 손에 들고 있던 담뱃대를 다다미 위에 내던졌다. 그리고 다이스케에게 「나도 이제 더 이상 너를 돌봐주지 않을 테니까」하고 잘라 말한다. 이때 다이스케는 「직업」이라는 두 글자와 「물질적 공급의 두절」이라는 말이 자꾸만 머리 속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그의 뇌리에는 「불안」으로 가득 찬 회오리바람이 몰아쳤다.

위와 같이 나쓰메 소세키는 『그 후』라는 작품을 통해 주인공 다이스케의 생의 불안을 정밀하게 묘사했다.³⁾

『마음(こころ)』의 주인공 선생도 친구 K가 자살한 뒤, 시즈와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지 않는다. 선생은 「K」의 죽음 이후 1년이 지나도 마음은 항상 불안하다. 선생은 그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책만 파고들었지만 불안과 죄의식, 고독감에서 벗어나질 못한다.⁴⁾

나쓰메 소세키의 소설에 나타난 테마를 분석해보면 대략적으로 예고이즘의 추구, 지식인의 마음의 갈등, 죄의식, 고독감, 죽음과 자살, 삼각관계, 불륜에 대한 공포, 금전의 구애, 부친과 자식의 갈등, 급격한 근대화에 대한 지식인이 느끼는 두려움, 근대 과학문명의 빠른 진보에 대한 두려움과 고뇌, 여성의 아집 등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예고이즘의 추구, 삼각관계, 불륜에 대한 공포, 부친과 자식의 갈등, 죄의식, 급격한 근대화에 대한 지식인이 느끼는 두려움 등을 아우르는 하나의 상의개념, 그 저변에 잔잔하게 깔려 있는 개념은 「인간의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夏目漱石 『それから』「6」(岩波書店, 1986.11) 74~75면 참조.

3) 같은 책, 『それから』「16」, 257면 참조.

4) 夏目漱石 『こころ』「下, 先生과 遺書, 52~55」(岩波書店, 1983.11) 269~279면 참조.

본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夢十夜』에 인간의 불안이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점검해 보려고 한다. 특히 「第一夜」·「第三夜」·『第七夜』에 나타난 불안의 특징적인 모습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해 보겠다. 본 연구는 『夢十夜』에 나타난 불안 양상의 특징을 명확하게 밝혀내는데 목적이 있다.

『夢十夜』 열 개의 작품 가운데 「第一夜」·「第三夜」·『第七夜』만을 선택하여 불안을 고찰하는 이유는, 세 작품에 나타난 불안의 특징적인 모습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흥미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고 연구의 성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

나쓰메 소세키 작품 『夢十夜』는 1908년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7월 26일과 8월 1일을 제외하고 10일간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연재된 작품이다 『夢十夜』에 나타난 불안 연구에 대하여 일본과 한국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물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夢十夜』는 고미야 토요타카(小宮豊隆)를 비롯한 제2차세계대전 이전의 나쓰메 소세키 연구자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작품으로 취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1949년에 이토 세이(伊藤整) 씨는 소세키 문학에 있어서 『夢十夜』는 양적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질적으로는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논했다. 그리고 『夢十夜』에는 인간존재의 원죄적(原罪的)인 불안이 그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夢十夜』에 대하여 논하는 연구자는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고전 같은 연구물로 오늘날까지 주목받고 있다.⁵⁾

한국전쟁이 끝나던 해인 1953년에 아라 마사히토(荒正人) 씨는 「소세키의 어두운 부분(漱石の暗い部分)」이라는 논문을 통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도입하여 『夢十夜』 「第三夜」의 골격을 「부친 살인」으로 해독했다. 그리고 「第三夜」의 결말에서 장님 살인이라고 하는 죄의식이 자각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쓰메 소세키의 많은 작품에 기조가 되고 있는 죄악감의 원형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⁶⁾

한국인 연구자가 발표한 『夢十夜』론 가운데 불안에 관련한 선행연구물 두 편을 소개하여 보면 최명희 씨는 「『夢十夜』論-第一夜·第七夜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통해 『夢十夜』 「第七夜」에 나타난 불안한 정서(情緒)의 원인은 문명비판과 신(神)에 대한 불신을 근거로 한 인간존재에 관련된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자아의 자각이라고 논했다.⁷⁾

본자는 『夢十夜』 「第七夜」에는 일본의 급격한 근대화와 근대문명, 서양문화 유입에 대

5) 伊藤整 「解説」(『現代日本小説大系』第16巻, 河出書房, 1949.05) 417면 참조.

6) 荒正人 「漱石の暗い部分」(『近代文學』12月号, 近代文學社, 1953.12) 48~50면 참조.

7) 崔明姬 「『夢十夜』論-第一夜·第七夜を中心として-」(『日本研究』4, 慶南大日本問題研究所, 1993.06) 141~159면 참조.

해 당시 지식인의 마음의 갈등과 불안이 투영되어 있으며, 이것은 일본 근대사회가 안고 있는 개인적인 불안(不安)과 비애(悲哀)의 문제가 작품에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⁸⁾

논자가 이번에 발표하는 「나쓰메 소세키의 『夢十夜』에 나타난 불안 연구-「第一夜」·「第三夜」·「第七夜」를 중심으로-」와 관련 있는 선행 연구물을 국내외에서 찾아보았으나 똑같은 연구 테마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존에 발표된 『夢十夜』에 관한 선행연구물 가운데 불안에 관련된 부분을 참고하여 논을 진척시켜 나가겠다.

3. 불안의 정의와 분류

불안(不安)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그 시대와 당대의 문화적 양식에 따라 다소 강도와 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그리고 불안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리키 이매뉴얼 씨는 불안이란 조마조마함, 두근거림, 불쾌한 감각, 희미하지만 연속적인 불편함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불안은 문자 그대로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⁹⁾

불안은 그 대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것을 걱정, 혹은 공포라고 표현한다면 불안은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정도에 따라 극도의 불안, 번민, 공포로 구분하는데 이것들 역시 불안의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다.¹⁰⁾ 그러므로 근심, 걱정, 공포, 번민, 염려, 두려움은 불안이라는 말과 더불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혼용하고 있는 유사한 의미의 말들이다.

생명활동은 항상 계속되며 정지하는 일이 없으므로 그것을 자각했을 때에 인간은 불안 정함을 느낀다. 삶의 기저에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지성이 있는 생물로서 당연한 일이며 불안이 인간에게 그 존재성을 실감시킨다고도 할 수 있다. 인간이 최초로 모체로부터 분리된다고 하는 출생체험은 근본적 불안이며 불안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에 수반되는 외계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쾌정동(不快情動)을 기저불안(基底不安)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불안을 분류해보면, 현실에 있는 것이 위협이 되어 높아지는 현실불안, 초자아(超自我)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반응인 도덕적 불안, 이드(id:정신 분석학에서, 정신의 심층부에 있는, 본능적 에너지의 원천, 성욕 등의 원시적 욕구)로부터의 위협에 반응하여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강도가 심한 신경증적 불안, 욕구불만이 잘 처리되지 않을 때나 갈등상태에 나

8) 권혁건 「나쓰메 소세키의 『夢十夜』 「第七夜」와 최인훈의 『광장』에 나타난 투신자살 비교 연구」(『나쓰메 소세키와 한국』, 제이앤씨, 2004.02) 141면 참조

9) 리키 이매뉴얼 지음, 김복태 옮김(『불안』, 이제이북스, 2003.05) 10~11면 참조

10) 민혜숙 『한국문학 속에 내재된 서사의 불안』(예림기획, 2003.09) 24~25면 참조

타나는 성불안, 시험을 치르는 일 따위에서 발생하는 테스트불안 등이 있다.

불안의 증상으로서 자각되는 것은 「마음이 죄인다」, 「가슴이 답답하다」, 「기분이 무거워진다」 등의 느낌이다. 불안하게 되면 일상 생활행동에서도 어딘가 편안하지 못함을 느끼게 된다.

인류의 염원은 개인의 안정과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개개인은 끊임없는 욕구불만과 심리적인 갈등, 위기의식을 경험하게 되어 그 결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20세기 이후 과학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생활이 풍요롭고 편리해지는데 비례해서 이상하게도 사람들로 하여금 상실감과 몰락의 느낌을 갖게 만들고 인간이 느끼는 불안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근현대인들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개인주의」와 「도구적 이성」이 난무하고 있는 근현대사회의 구조 때문이기도 하다.¹¹⁾

4. 『第一夜』에 나타난 불안

『第一夜』를 읽으면 환상적인 낭만세계가 펼쳐져 있는 작품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여자의 새까만 눈동자 깊숙한 곳에 내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라 있는 부분」, 「그녀의 긴 속눈썹 사이에서 눈물이 뺨에 흘러내린 부분」, 「커다랗고 모서리가 매끄럽게 닳은 예리한 조각로 여자를 문을 구덩이를 파고 있는 부분」, 「하늘에서 떨어진 별 조각을 주어다가 묘비로 삼고 있는 부분」, 「새하얀 백합이 내 코 앞에서 진한 향기를 풍기고 있는 부분」, 「새벽 별이 오직 하나 깜빡이고 있는 부분」 등은 현실세계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환상적인 장면이다.

『第一夜』 주인공 여자의 모습을 보아서 도저히 죽을 사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위를 향해 반듯한 자세로 누워있던 여자가 조용한 목소리로 「이제 죽어요(もう死にます)」라고 분명히 말한다. 여자는 자신이 죽는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주인공 「남자(나:自分)」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알리고 있는 것이다.

남자는 투명하리 만치 깊게 보이는 여자의 검은 눈의 윤기를 바라보면서 「이런데도 죽는 걸까?(これでも死ぬのか)」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자는 베개 옆에 입을 갖다대고 도저히 죽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여자에게 「죽는 것이 아니지요? 괜찮은 거지요?(死ぬんじゃないかな。大丈夫だろうね)」라고 되물었던 것이다. 이후 남자는 「내 얼굴이 보이나요?(私の顔が見えるかい)」, 「언제 만나러 오나요?(何時逢いに來るかね)」라고 묻는다.

『第一夜』에 표현된 「이런데도 죽는 걸까?」, 「죽는 것이 아니지요? 괜찮은 거지요?」, 「내 얼굴이 보이나요?」, 「언제 만나러 오나요?」라는 생각과 물음은 남자의 불안한 마음이 스

11) 찰스 테일러 지음, 송영배 옮김(『불안한 현대 사회』, 이학사, 2003.02) 154~158면 참조

며 나온 표현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표현을 분석해 보면 남자는 여자와의 사별(死別)을 거부하려는 의사 표시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오타케 마사노리(大竹雅則) 씨가 주장한 것처럼 이 남자는 현실 세계에서 여자와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며, 여자의 전생(轉生)에 의한 사후(死後)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¹²⁾

여자는 의연한 태도로 남자에게 자신이 「죽거들랑 물어주세요. 커다란 진주조개로 구멍을 파고,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별의 파편을 무덤의 표시로 놓아주세요」라고 부탁한다. 남자는 언제 만나러 오느냐고 묻는다. 여자는 「해가 뜨지요. 그리고 해가 지지요. 그리고 또 뜨지요. 그리고는 또 지지요. 붉은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떨어져 가는 동안, 당신 기다릴 수 있나요?」라고 남자에게 묻는다. 남자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백년 기다려 주세요」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자는 「백년 내 무덤 옆에 앉아 기다려 주세요. 꼭 만나러 올 테니까요」라고 부탁한다. 남자는 여자에게 그저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여자가 죽는 시점에서 남녀의 사랑의 밀어(密語)가 계약(契約)에 의해 성립된 것을 의미한다. 이후 여자의 눈이 굳게 잠기며 긴 속눈썹 사이로부터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렸다. 여자는 어느새 죽어 있었다.

여자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폐결핵에 의한 병사 같은 그림자를 질게 드리우고 있다. 남녀의 순수한 사랑은 여자의 죽음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이 끝난 것이다. 여자가 죽고 난 후, 남자는 환생에 의한 부활을 기대한다. 그 이유는 여자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현실세계에서 여자와의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가 죽을 때 부탁했던 「백년, 내 무덤 옆에 앉아 기다려 주세요. 꼭 만나러 올 테니까요(百年、私の墓の傍に坐って待っていて下さい。きっと逢いに來ますから)」라는 말을 순진하게 믿는다.

니시무라 요시코(西村好子) 씨는 「백년이란 인간의 일생의 시간이고, 피안에서 피안에 이르는 시간」이라고 논했다.¹³⁾ 사사키 미쓰루(佐々木充) 씨는 「99년 간이라는 표현이 영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백년이란 완벽한 영원의 표현」이라고 논했다.¹⁴⁾

니시무라 요시코 씨가 주장한 것처럼 백년이란 인간의 일생을 나타내는 시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第一夜」에서의 「백년」은 자신이 살아 있을 수 없는 시간, 뛰어 넘을 수 없는 긴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자는 여자가 죽자 뜰로 내려와 큰 진주조개 껍질로 무덤을 판다. 진주조개는 커다랗

12) 大竹雅則 『夢十夜 - 生のかなしみ-』(『夏目漱石論叢』、櫻楓社、1988.05) 106면 참조

13) 西村好子 『散歩する漱石-詩と小説の間』(翰林書房、1998.09) 104면 참조.

14) 佐々木充 『夢十夜』解析(『帯廣大谷短期大學紀要』第8号)(人文科學・社會科學)帶廣大谷短期大學、1970.12) 79면 참조

고 모서리가 매끄럽게 닳은 예리한 조개였다. 진주조개로 흙을 떠낼 때마다 조개의 뒷면에 달빛이 반사되어 반짝거렸다. 흙을 얼마동안 퍼내어 구멍이 생기자 여자를 그 안에 눕혔다. 그리고 부드러운 흙을 위에서 조용히 뿌렸다. 뿌릴 때마다 진주조개 뒷면에 달빛이 반사되었다.

여자를 묻어주고 난 이후, 별의 궤적이 떨어져 있는 것을 주어져서 살며시 흙 위에 올려놓았다. 남자는 무덤 옆의 이끼 위에 앉았다. 「이제부터 백년동안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자를 기다린다.

여자가 생전에 말한 대로 크고 붉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얼마 후 서쪽으로 떨어져 갔다. 남자는 「하나」 하고 세었다. 남자는 붉은 해를 하나 둘 헤아리는 사이 붉은 해를 몇 개나 보았는지 모른다. 세어도 세어도 다 셀 수 없을 만큼의 붉은 해가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남자는 이끼가 낀 둥근 돌을 바라보며 「여자에게 속은 것은 아닐까?(女に欺されたのではなからうか)」 하고 여자의 말을 의심을 하게 된다. 즉, 남자는 처음에는 여자의 말을 믿지만 죽은 여자를 묻어주고 난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이 「여자에게 속은 것은 아닐까?」 하고 여자의 말을 의심하면서 정신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남자가 「여자에게 속은 것은 아닐까?」 하고 불안한 마음을 나타내는 순간에, 돌 아래서 비스듬히 남자 쪽을 향해 초록빛 줄기가 뻗어 나왔다. 눈앞에서 금새 길어지더니 가슴까지 와서 멈추었다. 흔들리는 가늘고 긴 줄기 끝에 한 송이의 꽃봉오리가 탐스럽게 꽃잎을 열었다. 새하얀 백합이 코끝에서 뺨속까지 스며들 정도로 향기를 풍겼다. 남자는 고개를 앞으로 내밀어 새하얀 백합 꽃잎에 입을 맞추었다. 남자가 흰 꽃잎에 입맞춘 뒤 먼 하늘을 보자 새벽 별이 오직 하나 깜빡이고 있었다. 남자는 이 순간에 「백년은 이미 와 있었구나」 라고 처음으로 깨닫는다.

5. 「第三夜」에 나타난 불안

『夢十夜』 「第三夜」는 부친이 여섯 살 난 장님의 아이를 업고 밤길을 걸어가는 이야기이다. 아이는 부친의 자식임에 틀림없으나 부친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멀어 장님이 되어 있다. 장님의 아들을 자신의 등에 업고 해오라기 그림자가 어둠 속에 비치는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 부친의 모습을 통해 이 작품은 처음부터 까닭 모를 불안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第三夜」의 아이는 부친에게 「눈에 접어들었구먼」 하고 등뒤에서 말했다. 부친은 「어떻게 알지?」 하고 얼굴을 뒤로 돌리듯이 하고 묻자 「해오라기가 울잖아」 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해오라기가 과연 두 번 정도 울었다. 아이는 다시 「아버지 무거워?」 라고 묻는다. 부

친이 「무겁지 않은데」라고 대답하자 아이는 「곧 무거워질걸요」라고 말한다.

두려움을 느낀 부친이 빨리 숲으로 가서 등에 업힌 자신을 버리려고 하는 의도를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이 아이는 「조금만 가면 알아」하고 말하면서 부친을 숲 쪽으로 가도록 유도한다. 부친이 숲 쪽으로 다가가니 등뒤 업힌 아이가 「아무래도 장님은 부자유스러워서 안 되겠어」, 「업히게 되어서 미안하지만 참으로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여 안 되겠어. 부모까지도 우습게 보여 안 되겠어」라고 말한다.

위의 말을 들은 부친은 어쩐지 아이가 싫어졌다. 얼른 숲으로 가서 그곳에 버리자고 생각한다. 장님인 아이를 등에 업고 어두운 밤에 논길을 걸어가고 있는 부친은 등에 업힌 자신의 아이가 툭 툭 내뱉는 말이 정확하게 실현되는데 내심 불안감을 느껴 아이를 내다 버리려고 숲 쪽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던 것이다.

이후 아이는 등뒤에서 「꼭 이런 밤이었지」라고 말한다. 부친은 「뭐가?」라고 다급한 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아이는 「뭐라니. 알고 있잖아」하고 조롱하듯이 비아냥거린다. 부친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알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비는 아까부터 내리고 있다. 길은 점점 어두워진다. 장님인 아이는 부친의 등뒤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부친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을 낱알이 비추어보며 한치의 사실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는 것이다. 부친은 견딜 수가 없어졌다. 부친을 공포와 불안의 세계로 몰고 가는 사람은 바로 장님 아이였다.¹⁵⁾

아이는 어째서 처음부터 「부친의 마음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으면서도 모르는 척했을까?」 그리고 아이는 어째서 「부친을 숲 쪽으로 가도록 유도했던 것인가?」 등뒤에 업힌 아이는 자신의 부친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부친을 자기 생각대로 유도해 가고 있다.

「第三夜」에서 부친이 아이를 등에 업고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다. 그러나 아이는 자신의 부친이 자신을 등에 업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이다.

부친의 의도를 간파한 아이는 「조금만 가면 알아. 꼭 이런 밤이었지」하고 등뒤에서 혼잣말처럼 말한다. 부친이 숲 쪽을 향해 정신 없이 걷고 있는데 등뒤의 아이는 「여기다. 여기. 바로 그 삼나무 뿌리 있는 데다」라고 말한다. 아이의 말에 부친은 자신도 모르게 멈추어 섰다. 아이가 말한 대로 한 칸 정도 앞에 있는 검은 것은 삼나무처럼 보였다. 아이는 「아버지, 저 삼나무 뿌리 있는 곳이었지」하고 말하자 부친은 「응, 그래」하고 자신도 모르게 대답해 버렸다.

「第三夜」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이는 「네가 나를 죽인 것은 지금부터 꼭 백년 전이지」라고 말한다. 부친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지금으로부터 백년 전 문화(文化) 5년 진년(辰年: 에도시대의 연호, 1808년)의 이런 캄캄한 밤에 이 삼나무 뿌리에서 한사람의 장님을 죽였

15) 권혁진·한광수 「나쓰메 소세키의 『夢十夜』 「第三夜」와 동아시아문학 비교 연구」, 『日本文化學報』 「第22輯」, 2004.08) 202면 참조.

다고 하는 자각이 홀연히 머릿속에 떠올랐다. 부친은 아이의 말을 통해 자신이 살인자였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는 순간, 등뒤의 아이가 돌부처처럼 무거워짐을 느낀다.¹⁶⁾

6. 「第七夜」에 나타난 불안

「第七夜」는 위에는 태양과 아래는 바다라는 명확한 공간구조 속에 큰배가 매일 끊임없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파도를 가르고 나아가고 있다. 「나」라고 하는 주인공은 엄청난 소리를 내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큰배를 타고 있다.

태양(太陽)은 창조자, 장엄, 권위, 위대한 여행자, 고독한 탐험가 등을 상징한다.¹⁷⁾ 하지만 「第七夜」에 묘사된 태양은 파도 밑으로부터 시뻘겋게 달구어진 부젓가락 같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다. 마지막에는 태양이 빨갛게 달구어진 부젓가락처럼 「치~익」 소리를 내고 다시 파도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第七夜」에 묘사된 태양은 시뻘건 의미를 포함한 대단히 격렬한 인생을 살아 온 궤적(軌跡)으로 나타나 있다고 보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작품 속에서 빨갛게 달구어진 태양이 바다로 지는 장면을 「치~익」 소리를 내면서 파도 밑으로 가라앉아 갔다고 표현되었다. 여기서 빨갛게 달구어진 태양이 바다 속으로 들어갈 때 「치~익」 소리를 내었다고 하는 감각적 표현을 고려해보면 「치~익」 소리는 죽음을 연상시키고 있다.

바다는 원초(原初)의 창조를 나타내며, 모든 것이 태어나고 그리고 돌아가는 신비적인 장소(場所), 유동(流動), 죽음(死), 영원(永遠), 고독(孤獨)을 상징하는 것이다.¹⁸⁾

「第七夜」에 묘사된 「푸른 파도가 검붉은 색깔로 들끓는다」·「바다 물 빛같이 검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고려해보면 작품에 나타난 바다는 공포와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태양조차 「치~익」 소리를 내며 그 속으로 들어가 죽는 장소가 바다라고 한다면 「第七夜」에 묘사된 바다는 단순히 죽음과 공포의 의미뿐만 아니라 포용(包容)을 상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많은 사람이 함께 타고 있는 큰배는 인간세계, 인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¹⁹⁾ 작품에 묘사된 큰배는 명치시대 당시 외국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이용했던 증기선(蒸氣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증기선은 19세기 이전 일본에 없었던 배이므로 근대문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큰배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인지 확실

16) 夏目金之助 『漱石全集』12, (岩波書店, 1994.12) 652~653면 「注解」 참조.

17) 山下主一郎 他9人譯 『イメージ・シンボル事典』(大修館書店, 1989.05) 612~614면 참조.

18) 같은 책, 554~556면 참조.

19) 笹淵友一 『夏目漱石-「夢十夜」論ほか-』(明治書院, 1986.02) 122면 참조.

하지 않으므로 「第七夜」에 묘사된 큰배는 대단히 불안정한 장소임을 암시하고 있다.²⁰⁾

「第七夜」에 등장한 큰배에는 돛대가 세워져있다. 그리고 배 안에 살롱과 피아노가 있다. 그런데 요즘 일본에서 운행되는 대형 여객선에 돛대를 달고 다니는 배는 거의 없기 때문에 「第七夜」에 등장한 큰배가 어떤 배인지 쉽게 짐작 할 수가 없다.

논자의 조사에 의하면 「第七夜」에 등장한 배와 비슷한 모습을 한 선박은 현재 큐슈(九州) 나가사키의 하우스텐보스(HUIS TEN BOSCH) 안에 있다. 배의 이름은 「간코마루(觀光丸)」라는 증기선이며 이 배의 선상에는 돛대가 세 개 세워져 있다. 「간코마루」는 에도 시대 말에 네덜란드의 윌리엄 3세 국왕이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에 기증한 배로 일본 최초의 증기선이다. 메이지시대 일본의 선각자와 지식인, 유학생들이 「간코마루」와 유사한 배를 타고 유럽을 왕래했던 것이다.²¹⁾

주인공 「나」는 확실히는 모르나 큰배에 타고 있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었으나 배 안에서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은 「뱃사람」이었다.

「나」는 배 안에서 처음으로 만난 뱃사람을 붙들고 「이 배는 서쪽으로 갑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뱃사람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꺾꺾 웃으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나」는 언제 육지에 닿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안해졌다. 마음에 불안을 느낀 「나」는 「이런 배를 타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몸을 던져 죽어버릴까」 하고 생각한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자꾸만 울고 있는 여자였다. 세 번째 만난 사람은 천문학과 신(神)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었다. 네 번째 만난 사람은 살롱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젊은 여자와 그 여자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젊은 남자였다.

「나」는 선상(船上)에서 「뱃사람」, 「울고 있는 여자」, 「외국인」, 「젊은 남녀」 등 네 종류의 사람들을 대면했으나, 그들에게 인간적인 정(情)을 느껴 마음을 터 놓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오히려 육지에서의 삶을 잊어버리고 있는 듯이 보이는 이들과의 대면을 통해 「나」는 사는 것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며 생(生)에 대한 불안감만 깊어져 간다.²²⁾

또한 「나」 라는 주인공은 남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받아들여 함께 울어주고 대화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서양문화·서양학문·근대문명 등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것들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지 못한 「나」는 마음의 불안, 슬픔, 따분함을 절실히 느껴 마침내 투신자살을 시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투신자살하기로 마음을 정한 「나」는 어느 날 저녁 주위에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과감하게 배 위에서 바다 속으로 뛰어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다리가 갑

20) 山田晃 『夢十夜參究』(朝日書林, 1993.12) 142면 참조.

21) HUIS TEN BOSCH 編 『GUIDE MAP』(HUIS TEN BOSCH 發行 2002) 11 면 참조.

22) 권혁건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와 한국』(제이앤씨, 2004.02) 124~125 면 참조.

판을 떠나 배와 인연이 끊긴 그 찰나에 「나」는 갑자기 목숨이 아까워짐을 느낀다. 마음속으로 바다로 안 뛰어들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배에서 발이 떨어진 이상 자신이 행한 행동을 되돌리기에 시간적으로 늦었다. 싫으나 좋으나 「나」는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주인공 「나」가 배와 인연이 끊긴 바로 그 찰나에 갑자기 목숨이 아깝다고 느꼈던 것은 「생명에 대한 집착」을 자각한 것으로 보아 틀리지 않다.²³⁾ 그렇다면 주인공 「나」의 투신 자살은 마음의 불안과 따분함 때문에 행한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이었지만 실체는 한순간의 잘못된 착각에 의해 행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7. 결론

이 논문에서는 「나쓰메 소세키의 『夢十夜』에 나타난 불안 연구-「第一夜」·「第三夜」·「第七夜」를 중심으로-에 대하여 분석, 점검해 보았다. 논자가 분석한 것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第一夜」에 묘사된 아름다운 여자와 새하얀 백합 등을 고려하여 이제까지 수많은 연구자들은 이 작품이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작품으로 해독해 왔다. 그러나 각도를 남자 주인공의 심리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第一夜」는 남자의 불안한 마음이 묘사된 작품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을 명확하게 밝혀냈다.

특히 「이런데도 죽는 걸까?」, 「죽는 것이 아니지요? 괜찮은 거지요?」, 「언제 만나러 오나요?」 라는 생각과 물음은 남자의 불안한 마음이 드러난 표현이다. 죽은 여자의 무덤 옆에서 백년간을 기다리고 있는 남자가 「여자에게 속은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장면 묘사는 남자의 불안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된다.

새하얀 백합의 출현에 의해 남자의 불안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남자가 갈망하고 기다렸던 것은 현실세계로 다시 돌아 올 여자를 기다린 것이지 백합으로 환생한 여자를 기다렸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품은 종결되어 있다.

둘째, 「第三夜」의 부친에게 있어 아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존재」·「자신에게 불안을 안겨주는 존재」로 묘사된 것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특히 부친은 등에 업힌 자신의 아이가 툭 툭 내뱉는 말이 현실세계에서 정확하게 실현 되는데 내심 불안감을 느낀다. 또한 등뒤에 달라붙어 있는 장님의 아이가 부친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백년 전의 살인사건을 폭로하고, 자신의 현재의 마음의 움직임과 미래 일까

23) 앞의 책, 笹淵友一 『夏目漱石「夢十夜」論ほか』, 130면 참조

지를 거울을 보듯이 비쳐보고 있다는 것에 부친은 마음의 불안을 느꼈던 것이다.

셋째, 「第七夜」의 주인공 「나」가 투신자살을 하게 된 동기는 선상에서 외국인들과 대면했으나 그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마음의 불안과 따분함 등을 느껴 바다에 투신했던 것이다.

「第七夜」에는 일본의 급격한 근대화와 근대문명, 서양문화 유입에 의한 당시 지식인의 마음의 갈등과 불안이 투영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이 급격히 근대화되어 가는 사회에 있어서 근대사회가 안고 있었던 개인적인 불안의 문제가 작품에 나타난 것이다.

넷째, 『夢十夜』의 「第一夜」, 「第三夜」, 「第七夜」 세 작품에 나타난 불안의 특징적인 모습을 간략하게 점검해 보겠다.

「第一夜」에는 죽은 여자의 무덤 옆에서 백년간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서 여자의 생전(生前)의 언사(言辭)를 의심하는 남자의 불안한 마음이 특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第三夜」에는 부친의 등뒤에 엮혀있는 장님의 아이에게 부친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특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第七夜」에는 일본의 급격한 근대화와 근대문명, 서양문화 유입에 대해 당시 지식인이 느끼는 개인적인 불안의 문제가 특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불안이란 조마조마함, 두근거림, 불쾌한 감각을 말하며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夢十夜』의 「第一夜」, 「第三夜」, 「第七夜」 세 작품에 나타난 불안은, 인간이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과 메이지시대에 일본이 급격하게 근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당시 일본인들이 느꼈던 개인적인 불안이 특징적으로 묘사되었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소설에는 그 시대를 살았던 작가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경험, 주관적 체험, 정서, 생활양식, 가치 체계 등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작가는 자기가 살았던 시대의 변화와 교섭하고 대화하면서 세상의 처지를 이해하고 성찰한 것을 작품을 통해 알게 모르게 표현해 내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작가와 작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夢十夜』에 나타난 불안 표현을 점검해 보면, 작가 나쓰메 소세키가 메이지시대를 살면서 느끼고 있던 불안한 정서가 『夢十夜』라는 작품 속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쓰메 소세키가 『夢十夜』라는 작품을 통해 인간의 불안의 여러 양상을 나타낸 원인과 이유는 다각도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격변의 시대에 태어나 고물상 집으로 수양아들로 보내졌던 일, 1868년 만 나이로 한 살이 된 해의 시오바라 마사노스케(塩原昌之助)라는 사람의 가난한 집으로 양자로 보내진 일, 불안정한 영국 유학체험, 신경쇠약, 위궤양, 부인과의 갈등, 서양문명의 급격한 유입에 대한 강도 높은 우려감, 일본의 근대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등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지면 관계상 앞으로의 과제로 삼으려고 한다.

【參考文獻】

- 권혁건(2004) 「나쓰메 소세키의 『夢十夜』 「第七夜」와 최인훈의 『광장』에 나타난 투신자살 비교 연구」, 『나쓰메 소세키와 한국』, 제이앤씨, P.141.
- 권혁건·한광수(2004) 「나쓰메 소세키의 『夢十夜』 「第三夜」와 동아시아문학 비교 연구」, 『日本文化學報』 「第22輯」, P.202.
- 권혁건(2004)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와 한국』, 제이앤씨, PP.124 ~125.
- 리키 이매뉴얼 지음, 김복태 옮김(2003) 『불안』, 이제이북스, PP.10 ~11.
- 민혜숙(2003) 『한국문학 속에 내재된 서사의 불안』, 예림기획 PP.24 ~25.
- 찰스 테일러 지음, 송영배 옮김(2003) 『불안한 현대 사회』, 이학사, PP.154 ~158.
- 崔明姬(1993) 「『夢十夜』論-第一夜・第七夜を中心として-」, 『日本研究』 4, 慶南大日本問題研究所 PP.141 ~150.
- 荒正人(1953) 「漱石の暗い部分」, 『近代文學』 「12月号」, 近代文學社 PP.48 ~50.
- 伊藤整 「解説」(1949) 『現代日本小説大系』 「第6巻」, 河出書房 P.417.
- 大竹雅則(1988) 「『夢十夜』 -生のかなしみ-」, 『夏目漱石論論攷』, 櫻楓社, P.106.
- 笹淵友一(1986) 『夏目漱石-『夢十夜』論ほか-』, 明治書院 P.122.
- 佐々木充(1970) 「『夢十夜』解析」, 『帯廣大谷短期大學紀要』 「第8号」(人文科學・社會科學), 帯廣大谷短期大學, P.79.
- 夏目漱石(1986) 『それから』 「6」, 岩波書店, PP.74~75.
- 夏目漱石(1983) 『こころ』 「下, 先生과 遺書 52~55」, 岩波書店 PP.269~279.
- 夏目金之助(1994) 『漱石全集』 「12」, 岩波書店, PP.652~653 「注解」.
- 西村好子(1998) 『散歩する漱石-詩と小説の間』, 翰林書房, P.104.
- HUIS TEN BOSCH 編(2002) 『GUIDE MAP』, HUIS TEN BOSCH 發行, P.11.
- 三好行雄 編(1990) 『夏目漱石事典』, 學燈社, PP.10~11.
- 山下圭一郎 他9人譯(1989) 『イメージ・シンボル事典』, 大修館書店, PP.612~ 614.
- 山田晃(1993) 『夢十夜參究』, 朝日書林 P.142.

要 旨

論者がこれまで考察したもののなかで核心的な内容を以下に要約した。

第一に、「第一夜」男性主人公の心理変化を分析してみると、「第一夜」は男の不安な気持ちが描寫された作品であるという解析が可能だ。死んだ女の墓の側で百年間待ち續けている男が「女に欺されたのではなからうか」と疑う場面描寫は男の不安な気持ちをそのまま現したのであらうと思われる。

第二に、「第三夜」の父親にとって子供というのは「不安な存在」・「自分に不安をもたらす存在」として描寫されていることをテキスト分析を通して明らかにした。

第三に、「第七夜」の主人公「私」が投身自殺をした動機は、船上で出會った數名の外國人と眞剣な對話を交すことができなかつたためだ。結局「私」は心の不安と退屈さ等を感じ、海に投身自殺したのだ。「第七夜」に現われる投身自殺の特徴は日本の急激な近代化と近代文明、西洋文化の流入による當時の知識人の心の葛藤と不安が投影されている点だ。これは日本が急激に近代化されていく社會において近代社會が抱いていた個人的不安の問題が作品に現われたのである。

第四に、『夢十夜』の「第一夜」、「第三夜」、「第七夜」の三作品に現われた不安の特徴的な姿を簡略に点檢してみた。

「第一夜」には死んだ女の墓の側で百年間待っている過程で女の生前の言辭に疑いを持つ男性の不安な気持ちが特徴的に描寫されている。

「第三夜」には父親に背負われている盲目の子供に父親が不安を感じているのが特徴的に描寫されている。

「第七夜」には日本の急激な近代化と近代文明、西洋文化の流入に對して當時の知識人が感ずる個人的な不安の問題が特徴的に描寫されている。

第五に、小説にはその時代を生きた作家の具体的で特殊な經驗、主觀的體驗、情緒、生活様式、価値体系等が反映されている。また、作家は自分が生きた時間と空間の変化と交渉し對話しながら世の中の在り方を理解し省察したことを作品を通じてそれとなく表現している。そのような作家と作品との關係を考慮して『夢十夜』に現われた不安表現を点檢してみると、夏目漱石が當時の時代に感じていた不安な情緒が『夢十夜』という作品の中にそのまま現われたのだと判斷される。

キーワード：夏目漱石, 夢十夜, 第一夜, 第三夜, 第七夜, 不安

투 고 : 2005. 11. 30

1차 심사 : 2005. 12. 10

2차 심사 : 2005. 12. 31

住 所 : (609-761)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1014번지 선경아파트 308-1302

電 話 : 051-514-3187

e-mail : kwon6134@hanmail.net